

CEO 동선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0일 21층 상황실에서 철도건설사업의 설계,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할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동해선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일 동해선 울산고가, 상개고가, 소골과선교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 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과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를 통해 고품질 철도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성덕제2터널, 모암터널, 규촌교 등 호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철도건설 현장의 재해발생률을 2020년도까지 0.05%까지 낮출 것을 당부하고, 고품질의 철도건설을 지시하였다.

공단, 설계심의분과위 및 설계자문위 재구성

- 철도건설사업의 설계·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및 심의 수행 -

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의 설계,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할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제5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터키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10년부터 운영 중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철도계획, 토목구조 등 10개 전문분야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터키·대안·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고, '04년부터 운영 중인 설계자문위원회는 녹색성장정책, 교통 등 20개 전문분야 총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설계 타당성, 공사시행 적정성, 구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공단은 '09년에 터키제도 개선 시범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홈페이지 공개, De-briefing(사후 설명), 심의위원 중간평가, 분과위원 워크숍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단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받고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함으로써 건설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철도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식

● 일시: 2012. 5. 10 (목) 15:00 ● 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21층 상황실 ● 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남부선 등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일 동해남부선 남문구정거장, 동래정거장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국민과의 약속인 적기개통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안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월 KR열린마당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일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5월 KR열린마당'에 참석, 제5회 국토부장관배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공단 축구대표팀과 경영평가 실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동범부장 쾌유 기원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정부경영평가 실사준비와 노사현안문제 해결 등 과중한 업무로 부상 치료중인 경영지원안전실 김동범 노사협력 부장을 병문안하고 쾌유를 기원하였다.

안전점검 검증으로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

- 공단, 안전사고 및 품질결함 근절, 부실업체 강력 행정제재 -

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결함을 근절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중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전문업체의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건설중인 25개 사업의 151개 현장 중 전년도 품질평가 하위현장, 저가낙찰현장, 시설물 연장 2km 이상 등 30개 현장을 선정하여, 전문업체가 시행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공단 안전진단팀이 교량, 터널 등 공종별 점검항목, 점검기준과 점검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철도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점검을 시행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화방안은 참여기술자 자격유무, 가시설 설계 및 시공 안전성, 대절도 사면의 안정성, 터널 굴착 계속관리 적정성과 구조물의 변형 등 안전 및 품질결함의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장봉희 품질안전평가처장은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강화 시행배경에 대해 "지난해 터널관련 재해사고는 터널 굴착중 암반정·계측관리·가설체 미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공단에서 10개 현장의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6회) 및 하자검사(19회)를 실시한 결과, 터널누수 및 교량받침 설치미흡 등 320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지적하여 보완하는 등 안전진단전문업체의 점검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에 대한 강화가 절실하였다."고 밝혔다.